



보도시점 2025. 11. 2.(일) **배포 시** 배포 2025. 11. 2.(일) 15:00

APEC 정상회의, 제주도산 한우·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길 열어

- 농식품부, 싱가포르 관계당국(Singapore Food Agency)와 검역협상 타결
-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2025 APEC 정상회의 한-싱가포르 정상회담(11.2.)을 계기로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모두 완료되어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.

싱가포르는 육류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.5% 성장 중(2019년 31억불→2023년 39억불)인 수출 유망 국가로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해 관계기관*과 협력하여 싱가포르 관계당국과 검역협상을 진행하여 왔다.

* 식품의약품안전처, 제주특별자치도,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관 등

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업체는 총 4개소*로 지난 2025년 8월 싱가포르 당국에서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모든 업체가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.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의 검역·방역시스템 뿐 아니라 개별 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해외로부터 인정 받은 사례로 향후 수출 협상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(도축장) 제주축산물공판장, 제주양돈축협 (가공장) 대한F&B, 서귀포축협

특히 한우고기의 경우, 이번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총 6개국*으로 확대되었으며, 싱가포르로는 냉장과 냉동 제품 모두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완료하여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(기존 수출국) 홍콩, 말레이시아, UAE, 캄보디아, 마카오 + (신규) 싱가포르

또한, 농식품부는 제주도산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외,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진행해 온 한국산 알 가공품(훈제 계란 등)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협상도 함께 완료되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.

송미령 장관은 “이번 APEC 계기 검역협상 타결 성과는 케이(K)-푸드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 주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”고 하며, “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등 다양한 축산물이 해외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농식품부	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수현	(044-201-2071)
		담당자	사무관 박제민	(044-201-2072)